

승대극회 제45회 가을 정기공연

李 箱 의



●기획:양현준 ●연출:권형진
일시: 1991년 9월 5일 (P.M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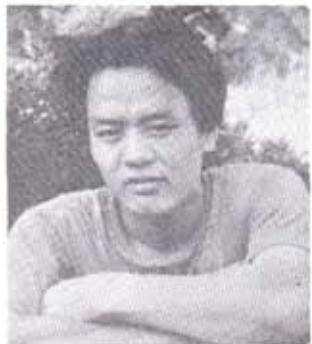
6, 7일 (P.M 2시, 6시)

장소: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제1공학관 3층)

주최: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모시는 글



극회장 남재우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감싸고,
호수를 만나면 쉬어가는,
어딘지 모르는 어머니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숭대극회가
존재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서
한모금 머금었습니다.
또 하나의 여름을 녹여버리고,
구경오세요. 이 미친 놀음을



작가 및 작품분석

I. 이상(李箱)에 대하여 (1910~1937)

시인·소설가이며, 본명은 김해경이다.

1929년 경성공고 건축과를 졸업하고, 1931년부터 작품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時(이상한 기억반응), (파편의 경치), (▽의 유희), (空腹), (삼차각 설계도) 등을 조선과 건축에 발표하면서 이상(李箱)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그의 초기 시편들은 내용이나 형식이 다분히 실험적이고 이색적이기에 전통적 문학의 계승이나 서정적 언어의 독특한 美的 추구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나 마 무의식과 의식의 흐름속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작가였다.

한동안의 방황끝에 쓰게된 작품이 또한 1936년 朝光에 발표된 “날개”였는데, 그의 정신적 황폐와 육체적으로 이미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옮긴 거라고도 볼 수 있었다.

그 후에 자신을 돌아보고 직접 문학적 혜택에 대한 환상을 품고 일본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미 고독과 절망에 휩싸인 그이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을 마감이라도 하듯「終生記」라는 장편 1편을 남기고 쓸쓸히 죽어갔다.

대체로 주요 작품으로는 시로서 「겨울(1933)」, 「오감도 (1934)」 … 등등 소설로서 「봉별기(1936)」, 「날개 (1936)」 … 등이 있는데, 시·소설·수필·평론을 합하여 모두 80여편이 전한다.

그의 작품의 특성 내지 색깔이라면 그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사상 가장 이채로운 존재, 이국 땅에서 기아와 병고를 안고 27세의 나이로 요절한 자의식의 천재인 이상!! 그의 문학은 난해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피해망상으로 엮어져 있다.

그럼에도 그의 자의식은 비정상적으로 순수한 사실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백 / 마 / 당 / 구 / 장 최신시설로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매분식 TEL. 816-9835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Cafe LAURA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무시겠습니다.



날개작품연구

표현양식 및 작품연구

본 작품은 2가지 시점에서 원작과 회곡으로서-상연을 전제로 하는-다양한 해석을 요구케 한다.

즉 1인칭 시점에서 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원작의 틀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처리하려는 회곡속의 등장인물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했다.

우리가 사용한 惠潮는 표현주의 양식을 빌린 2원적 무대 양식으로써 에피소드의 대개 많은 장면으로 나뉘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거나 순간적인 장면 전환을 보여 주려 한다.

무대 장치 또한 배우의 내면 세계를 포착하기 위하여 왜곡 되거나 또는 작가의 세계관과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왜곡 되거나 또는 작가의 세계관과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환상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가 복합되기도 한다.

그래서 배우는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강렬하면서도 자유 분방한 열정적인 표현을 해야한다.

이러한 양식과 접목시켜 본 작품 李箱의 「날개」에서 주인공의 허무주의적 사고의 내면 표출과 그런 비논리적인 행위를 터득, 과학하여 구체화 시키려는 재판 형식을 취하는 각자 등장인물간의 연기가 좀더 새로운 분위기로써 관객사이의 형식적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가 된다.-브레히트가 주장하듯 단순한 오락 차원이기 보다는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연극으로서- 주인공 나(주현)는 일상적 상식의 세계를 떠나 그날 그날을 그저 의욕도 없이 허무주의적 사고에 젖어서 무분별한 의미없는 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박제된 천재」에서 나타나듯이 자유에의 갈구를 하면서 모순된 문장이 보여주는 지식인의 광기를 지닌 인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극복될 수 없는 그의 허무주의 가치관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에 기인하여 재판을 통한 다른 시점에서 그의 죽음을 처리하려 한다.

원작에서의 1인칭 시점에서 탈피하여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사건의 흐름을 유도하는 사람으로서 극단적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검사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고로써 사건의 결과와 주현과 아내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그의 죽음을 단순한 타살로 정의 내리고… 주현의 내면적 동기를 들쳐 내어 인간적인 면으로 사건을 보려는

변호사는 주현의 심적 괴로움을 파헤쳐 아내(연심)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 진술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의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연민은 사건을 계속 타살과 연관지어서 그의 죽음에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면서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 들게 한다.

법정에서는 주현의 행위보다는 연심이 그에게 보여준 행동들에 주변의 인물들을 연관시켜서 그녀 스스로를 자책감에 휩싸이게 하는 공격적인 태도로서 매도 되어지는 결과에 이른다.

가장 문제시 되는 수면제 복용건에 부부간의 알 수 없는 오해만 쌓여가고 어느 사실에도 그렇다 아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하는 아내의 태도 또한 그의 죽음 자체에 자신이 어느정도 연루되어져서 주현을 그대로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주현의 죽음이 주는 message 또한 우리들이 쉽게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자기 학대에 반기를 든 행위라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쓰러져 간 한 영혼의 방황을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확인을 느끼는 아내의 절규가 그의 허무를 극대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죽음이 말 그대로 날기 위해서, 다시 한번 生에 대한 집착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아직 단정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의 내면 세계와 부딪히는 외적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식민주의 상황에 처한 고뇌하는 지식인의 고통을 李箱의 천재적 재능을 빌어 표현된 정제되어진 수많은 모순 덩어리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의 의식의 흐름 안에 내재되어 이는 인간적인 순수성일 뿐이다.

진정 최고의 飛翔은 무얼까?

단지 추락이 두려워 쉽게 비상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나약함이 싫어 그곳을 탈출하려는 李箱의 정신적 飛翔에의 추구 그 시대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목적의식 결여로 단정지어져 느낄 수는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들의 정신적 상실을 철저히 비웃는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건 왜일까?



기획의 변



기획 양 현 준(法90)

열사의 사막같은 열기
그 사이로 수증기처럼
피어오르는 끈끈한 정,
이 이상의 아름다운
젊음이 있을까?
두달동안 승대극회
선배님들, 후배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무대밖의 사람들



무대감독
이 영 민(물리 84)



무대미술
이 준 석(기계 85)



기획보
정 현 용(法 87)



조명
임 경 화(화학 87)



음향
이 경희(산공 89)



의상
남 재 현(철학 88)



홍보
안 상 준(기계 85)



진행
홍 은 영 (法 89)



분장
판 숙 경(사사 89)



무대장치
이 기 택(사사 90)



소품
현승옥(불문 89)



조연출
권승혜(불문 88)

승실광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 송실파밀리 TEL: 824-5282	큐피드 귀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 송실파밀리 TEL: 812-4360
한백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95-5 태화BD 301호 TEL : 266-4098 FAX : 278-0340	Cafe 현 어딘가 당신만의 시간을 원할 땐 TEL: 817-7221



연출의 변



연출 권형진(무역 86)

어두운 무대 위로 떨어지는 불빛
그곳에서 젊음의 땀과 정열을 쏟아붓는 우리들.
공연이 끝나면 허탈함이 엄습하지만,
아니 이 공허함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무대를
오르는지도 모른다.
막이 오르면 또다시 막은 내린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인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비상의 나래를 편다.

모든 사진은

23분 칼라현상소

• 상업은행

TEL: 813-2708 (송실대무역학과쪽)

연회석완비 한식전문

두/메/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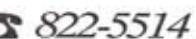
송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TEL. 813-3655

DEUCSEF FOT

☎ 822-5514



• 후문

송실대 정

경양식 & **호프전문점**

빼 예로

TEL: 812-5768 • 송실대



무대안의 사람들



하하하

판사
한석윤(기계 91)



검사
남재우(전자 90)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면 법 뒤는?
법 앞이 평등치 않은데
법 뒤는 따져
무엇하리!



변호사
이충희(전기 91)

쉬운건 아무것도 없었다.
앉아 있는 것부터
걸어가는 것까지
무대는 나에게
제2의 3차원이었다.



연심
권승혜(불문 88)

하면 할 수록
연기란 정말 어려운 것
이만큼 힘든 작업을
쉽게 생각하려는
내 자신을
반성해 본다.



주현
양현준(법 90)

나는
박제가 된 천재인가?
천재가 된
박제인가?



형사·남자
홍석환(기계 91)

제가
누구나구요?
글쎄요,
그런것까지
밝혀야합니까?



웨이터
장수선(전산 91)

메뉴판
어디서
빌려왔는지
맡쳐보라?



여자
이선희(회계 90)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



머나먼 인생의 항로속에 항상 고독과 외로움을
한 모퉁이에 모아둔채 우린 항상 횡한 가슴으로 구름낀
하늘을 바라다봅니다.
한번, 두번... 갈수록 힘이드는 노젓기지만
우린 항상 굳센 팔뚝으로 높은 파도를 노저어갑니다.
사랑하는 학우여!!
우린 영원히 작은 어깨를 맞부딪히며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한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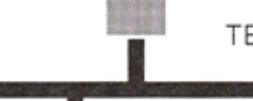
참된 연극인이 되시길 바라며, 대학연극의 기수로 활동하는
승대극회 제45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아리의 단결의 구심!!!

- 민족승실 동아리 연합회 -

보물창고

음반, 테입, 선물용품

TEL: 812-7338



• 송실파정문

김원식 헤어리더

자신있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 송실파정문

Rook Cafe



TEL: 816-4371

송실파정문



TEL: 824-4657

송실파정문

승실파내 구내 안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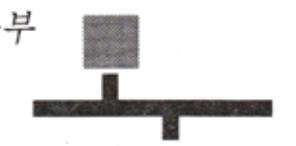
안경의 예술

당신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TEL: 816-7875

힐튼명과

맛의 승부



• 송실파정문

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희회소인국 "침례병을 나풀려 흥비 밀로" "마리아 노래의 일"			21	1979년 6:18, 19	"한강 2579F" 김영미作	정재호	이병국
	1923년 7:7, 21	전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봄에 청년회 주관			22	1979년 9:29 10:2	"초본" 오대석作	이정길	황정순
	1925년 7:28, 29	"소인연극" 교육청주최 주관			23	1980년 11:5, 6	"여니, 이 생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마인 클라크作"	염세희	박달현
1	1965년 11:	"페舅舅으로 돌아온다" 희망석作 이반기희	이반	전진호	24	1981년 11:12, 13, 14	"노부인의 방문" F. 워렌마리作	이종규	황정순
2	1968년 10: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25	1981년 11:12, 13, 14	"달빛이 빛" 김영중作	전혁근	황정순
3	1969년 10:10	"파자마"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26	1982년 12:12, 13	"카리골라" A. 카뮈作	음대동	지숙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진		27	1982년 10:7, 8	"페도우 박스" M. 코리스토퍼作	전희식	황정순
5	1970년 5:15	"熨衣师의 생활"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28	1983년 6:20, 21	"마리시파씨의 결혼" F. 워렌마리作	전희식	김영희
6	1970년 10:28, 29	"角의 韓求" 사무엘·페레트作	김향기		29	1983년 10:7, 8	"트리피" John Bowen作	이원우	오정열
7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오세환
8	1971년 11:4, 5, 11	"건널목 살화" 윤조행作	우정서		31	1984년 10:11, 12, 13	"전인조" John Stoltenhagen作	차서훈	이용길
9	1972년 5:25, 26, 27	"암벽해독에 확해지" 안본·제작	한영재		32	1985년 5:9, 10, 11	"민인걸" Maxim Gorky	김상현	이용길
10	1973년 5:21, 22, 23	"마시시파씨의 결혼" F. 워렌마리作	고보인		33	1985년 11:21, 22, 23	"삼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만나 파워스키	하승민	충기범
11	1973년 10:25, 26, 27	"왕" H. 편비作	김복남	자현재	34	1986년 6:4, 5, 6	"페우수스" PQVUS 피터+해미라	허성무	하승민
12	1974년 5:25, 26, 30	"장의사의 사람들" 온5악 A. 카뮈作	정종화		35	1986년 9:11, 12, 13	"프랑소" F. 이오네스코作	한상준	충기범
13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끼라는 이름의 계몽이"	김홍수	안홍순	36	1987년 6:3, 4, 5	"한국립발자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오정열
14	1975년 10:29, 30, 31	"미리안과 영화방" Max, Freshoff	김기철	안홍순	37	1987년 9:10, 11, 12	"오늘" A. Camus	오정열	박경근
15	1976년 6: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엔리작	김기남	김복남	38	1988년 6:2, 3, 4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이어령作	이종일	오정열
16	1976년 10:25, 26, 27, 28,	"敬畏" 장+클로드+반+이엔리작	김영덕		39	1988년 10:6, 7, 8	"안네녀, 꽃내녀" Dario FoFF	전태수	송근호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해미라	배정식	김영덕	40	1989년 5:25, 26, 27	"나" 윤조작	전승범	안선후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해미라	정영철	김영덕	41	1989년 10:10, 11, 12, 13	"내 성당의 살인" T.S. Eliot作	오정열	이빈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n	정영철	김영덕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아누이作	전태수	이준석
20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해미라	민승기	김영덕	43	1990년 8:30 9:1, 2	"한국연대기" 허석연식	전승범	이형민
					44	1990년 8:30, 31, 6:1	"생일파티" H. 편비	남재우	전승범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의 봄" W. Arvinghoff		김홍수	9	1985년 7:20	"ARIA DA CAPO" E. Sh. V. Millar作	이병민	파수민
2	1976년 10:29, 30, 31	"보복과 예언" 이강백作		김복남	10	1986년 3:17, 18, 19	"인혜의 길" 현탁+김진작	이길영	김정은 최성신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작	전경호	안홍순	11	1987년 3:12, 13, 14	"미리온 손 J.P. 샤프트르作"	배운현	박경근
4	1979년 3:29, 30	"꽃" 이강백作	한월	정재호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기" 이현화作	전승범	황금실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 Sh. V. Millar作	이병민	오세환	13	1989년 3:23, 24, 25	"죽인수녀를 위한 전론곡" A. Camus	홍택태	박경근
6	1982년 3:24, 25	"되고 싶은 당나귀" 최시영 김용학作	최시영	이용섭	14	1990년 3:8 9:10	"두율한 혼자 Botho Strand"	이병민	박혜숙 안상준 백도라
7	1983년 4:16,	"불해로메디" 피터+해미라	전희식	홍여식	15	1991년 3:7, 8, 9	"노크노 즐스파이작"	정현용	이병준
8	1984년 3:8, 9	"개인적 소공간" N. Holandski	자세훈	김인보					